두 가지 방식의 영적 삼각관계

(욥기 22:1~30)

21.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22.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23.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24.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25.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26.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27.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28.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29.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30.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두 가지 방식의 영적 삼각관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두 가지 방식의 영적 삼각관계'

드라마에서 많이 보듯이 삼각관계는 남녀사이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또한 사드 배치를 통한 한반도 관계에서 한미중은 삼각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삶과 죽음, 행과 불행,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정도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심각한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나와 세상과 하나님의 영적 삼각관계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이 삼각관계를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가셔서 신명기 6장 5~9절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리니라"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난 후에 한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물으

셨다고 합니다.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며, 과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겠는가를 질문하시면서, 넌지시 목사님은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묻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장황하게 설명할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웃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으셨지만 굉장히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거나 이 말씀을 제시할 때에 교인들은 분명히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업이나 직장생활이나 가정은 어떻게 돌볼 것인지를 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 교인들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중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만 뜨면 아니 꿈속에서도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에도 생각나고 기쁜 일이 있어도 생각납니다. 애인이 지금의 기쁨과 만족의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사업에 골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애인을 사귀든 사업에 골몰하든 학교도 가고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도 돌보고 친구도 만나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애초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 자녀 외모 등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원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에 연합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동선을 따라 움직여가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동안에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쉬지 않는다면 돈이나 자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바스가 다시 욥을 공박하기 시작하는데 감정이 격해집니다.

6~7절에서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라고 합니다. 일부 부자들이 권력을 행사함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배려 없고 등한시하고 착취하는 것에 대한 잘못들조차 욥에게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장에 보면 욥이 구제와 헌신에 노력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욥과의 교차점을 찾지 못하고 끝까지 평행선을 그리며 대립하는 것일까요? 엘리바스는 21~25절에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

라 /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라고 합니다.

이 부분만 보자면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보다도 왜 욥을 정당하게 보셨는지를 알 수 없을 만큼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나와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삼각관계에서 하나님을 보배로 느끼는 두 가지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욥과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보배로 느끼는 방식이 이 삼각관계 안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이 삼각관계에서 하나님을 보배로 여기는 방식은 마음의 공백을 채워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것은 이 세상에 있다고 믿었고, 하나님은 이 세상 것을 얻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규칙들을 잘 지키면 이 세상에서 목적하는 바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화 하지 말자'라는 경계의 말을 목사님들로부터 그동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실질적으로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늘 나와 세상과 하나님의 삼각관계에서 엘리바스와 같은 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삼각관계에서 세상의 위치에 자녀를 놓으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말씀도 지키려하고 헌금도 합니다. 엘리바스는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를 잃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방식을 계속해서 경계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이유는 대안이 되는 다른 방식의 삼각관계를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계하기만 할 뿐 대안이 되는 다른 방식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으신 분이라고 찬양하는 이유는 곧 하나님을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또 다른 방식의 삼각관계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수단화하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죽이려고 할 때에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잘 가꾸고 번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합니

다. 다른 방식과 대안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말자는 말은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 세상의 것을 사랑했으나, 이제는 세상 것을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자녀를 바라 볼 때에 사랑하는 마음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면서 자녀가 형통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로 옮겨오기 위해서 자녀를 수단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가진 사랑의 마음을 커트라인으로 삼아서 그것을 넘어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커트라인으로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자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걱정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묻혀버리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커져서 자녀에 대한 걱정거리가 좁쌀처럼 작게 여겨질 때에 자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걱정거리가 생기는 이유는 그들이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기쁨과 사랑은 항상 붙어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곧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마음에 품으셨을 때에 기쁨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며 걱정과 근심을 하는 이유도 자녀를 사랑하여 기쁨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걱정들이 좁쌀처럼 느껴질 때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하늘의 기쁨을 간구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을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삼각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에 세상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움직이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고, 아내 사라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표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삭과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고민이 생깁니다.
결국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금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녀 문제를 버림으로서 하나님을 얻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녀 문제를 해결해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결

국 세상을 얻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생각만을 가지고는 자기기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세상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죽은 척하며 살아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진짜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됨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못해 나이든 자녀가 있다면 부모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걱정거리가 깃털처럼 가벼워지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뻐해야만 합니다. 걱정거리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고 그 걱정거리에 대해 죽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기뻐집니다. 그럴 때에 죽은 척하며 세상에 대해 기대하는 자기기만과 신앙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현실이 되는 길은 오직 십자가 생활화뿐입니다. 우리 마음이 쉬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상 것들은 마음에 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마음에 담을 때에 하나님은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을 만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돈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고 동일시하는 고백을 한다면, 마음에는 그것들이 먼저 들어올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먼저 붙잡은 마음은 운명적으로 부활과 승천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걱정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질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기도가 쉬워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기쁜 상태로 나아갈 때에 세상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게 됩니다. 자녀에 대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세상 것이 없다면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습니다. 소중한 것이 주어졌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사랑의 재료로 주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마음을 쓰는 만큼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삼각관계에서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과 관계함으로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을 계기로 삼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올바른 방식의 영적 삼각관계를 유지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세상에 많은 것을 주셨고 목숨까지도 주셨습니다. 이 목숨까지도 하나님 사랑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쉬지 않고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

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